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한다

새해 투쟁 시작!

금속노조가 2018년 투쟁을 선포한다. 1월 24일(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합원 5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선포식을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해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1) 구조조정 중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노동악법 철폐와 노조할 권리 보장, 3) 산별교섭 제도화를 내걸었다. 지부가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는 노동악법 철폐에 포함됐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는 해인 만큼 금속노조의 투쟁도 더 철저히 준비되고 결의높게 실천돼야 한다.

구조조정과 노조파괴를 넘자!

금속노조 사업장 중 구조조정 위험에 처한 곳이 많다. 조선업을 비롯해 금호타이어 등이 당장 눈 앞에 닥친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지부 사업장도 올해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레오토모티브, 한온시스템, 대한이연, 보쉬, 코스모축매, 한국타이어, 현대성우메탈 등 많은 사업장이 쉽지 않은 투쟁을 벌이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지부는 지회 투쟁을 지원, 확

대하고 노조는 정부 차원의 제조업 대책을 촉구하며 구조조정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노조파괴에 악용되는 노동악법을 철폐하는 투쟁도 강력하게 펼쳐진다. 지부는 수많은 노동악법 중에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폐기를 핵심으로 고민해왔다. 복수노조 제도를 노조 차별, 노조 파괴의 무기로 만든 최악의 노동악법 중 하나다. 작년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의 상경 1인 시위로 시작한 투쟁이 금속노조의 새해 핵심 요구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반드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가 폐기해야 한다.

진짜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 힘으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간 정권은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무력화,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들이 이어졌다. 우리는 더이상 가만히 기다리면서 속을 수는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 스스로 힘으로만 만들 수 있다. 24일 신년투쟁 선포식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유성 노동자 따뜻한 겨울나기

금속노조가 전국 각지의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투쟁사업장 따뜻한 겨울나기'를 진행하고 있다. 지부는 유성지회를 선정하여 19일(금) 유성노동자 연대 한마당을 진행했다. 유성기업영동지회와 아산지회가 함께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에 모여 즐겁고 결의에 찬 행사를 만들었다.

지회는 지난 11일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에 진정성있는 교섭을 촉구했다. 노조파괴로 엉망이 된 현장을 정상화할 마지막 기회이다. 지회는 연대 한마당을 통해 투쟁의 결의를 더 높였다. 사측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주요 일정 *

- ☐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
1/22(월) 14시, 지부 사무실
- ☐ 금속노조 신년 투쟁 선포식
1/24(수) 15시, 서울 광화문